토요일이 즐거워…목포 '학교 밖 학교' 인기

대표적인 '학교 밖 학교' 보니
- 해양과학교실 (어린이 바다과학관)
- 자연사교실(자연사박물관)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문화예술회관)
- 토요 주말학교(시립도서관)
- 대통령의 길을 따라서(김대중 기념관)

목포지역 박물관·과학관·문화예술회관 등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교 밖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토요 자연사 교실', '대통령의 길을 따라서', '해양과학교실'.

박물관·과학관·문예회관 등 초등생 꿈·끼 키우는 교실 운영

대부분 무료… 다양한 강좌 만족도 높아

목포지역 초등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교 밖 학교'가 인기다.

목포지역 내 박물관·과학관·문화예술회관 등이 저마다 고유의 특색을 살린 교실을 운영하면서 '제2의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양과학교실(어린이 바다과학관)과 자연사교실(자연사박물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문화예술회관), 토요 주말학교(시립도서관), 대통령의 길을 따라서(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들 프로그램은 시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토요일에 열리는 데다 참가비도 대부분 무료여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바다야 놀자' 해양과학교실=학교 교과와 목포 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체험 시설을 연계한 상반기 토요해양과학교실로 오는 7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삼학도 수로탐방, 진동꽃게 만들기, 움직이는 물고기 등 목포지역 특성이 반영된 총 14개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목포교육지원청의 '목포주말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김보성 어린이바다과학관 담당은 "항구도시인 목포지역 어린이들에게 차별화된 해양과학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과학교실을 기획·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흥미진진' 토요 자연사교실=목포자연사박물관의 전시품과 초등과학 교과과정을 묶어 자연사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초등학생 맞춤형 과학교육이다.

박물관 전시품을 주제로 한 '화석의 생성원리', '개구리무게중심의 비밀', 과학원리를 응용한 '종이컵에 라면 끓이기', '소금물연료전지 자동차 만들기' 등 프로그램 내용이 다채롭다. 강사진도 영재 지도 경력이 풍부한 초등학교 교사진으로 구성돼 인기가 높다. 올해는 오는 12월까지 총 80강좌가 진행된다.

김만수 자연사박물관 담당은 "올해 토요 체험교실 중 '고인돌로 배우는 선사시대', '영산강 문화 이야기 속으로', '갯벌여행'은 새롭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자연과 더불어 남도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꿈을 키워요' 토요문화학교=목포지역 어린이들에게 창작적 감수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문화체험(뮤지컬 감상) 기회를 제공해 꿈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목포시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공동 주관해 오는 11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뮤지컬 체험'이라는 부제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초(4~6학년)·중·고 각 100명씩 총 3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4~6월, 중·고등학생은 7~11월에 뮤지컬 체험 및 감상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교육비, 교재비, 공연관람료 등 모든 경비는 무료로 학부모도 동반 참여할 수 있다.

◇'반갑다' 토요주말학교=목포교육지원청과 목포시립도서관이 공동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이후 2500여 명이 참가했다. 책과 함께 하는 푸드 아트 테라피, 독서토론-생각 집짓기, 엄마와 함께하는 천연비누 만들기 등 3개 강좌가 무료로 진행된다.

이밖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관장 최명호)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노벨평화상에 대해 알아보고 김대중 리더십 동화구연과 스피치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대통령의 길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각 8차례씩 총 16회 진행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탄력

전남도 기술 심의 통과…침수 예방 대책 마련 박차

목포시는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인 상동 버스터미널 일대 침수 예방 대책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터미널 앞 빗물저장 시설.

사업비 350억이 투입되는 목포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이 전남도 기술심의를 통과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 3월 사업비 12억4000만원을 들여 2·3호 광장 침수 예방을 위한 입암천 대하수도 운영방안 마련과 상동 버스터미널 앞 침수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남해배수구역인 용당 1·2동과 상동 버스터미널·하당동 일원에 우수관로 3.18km를 매설하고 빗물 배수펌프장 1개소와 하수시설 제어관리시스템 1식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총 사업비는 350억1600만원(국비 70%, 지방비30%)으로 오는 6월 착공해 2018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최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전남도 건설기술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번 심의에서 ▲입암천 바닥콘크리트 타설시 20m 간격으로 압력방지 파이프 시공 ▲상동배수펌프장 압송관로(D1200㎜)의 토피고(土皮高) 확보 ▲도심지에 설치하는 하수관거 등 지하굴착공사 시 지하토질탐사(GPR) 실시 등은 반영된 반면, 상리 대하수도 구간(84m) 개방형 설치는 복개하는 방안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받았다.

권장주 목포시 하수과장은 "현재 재원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 중이며 앞으로 전남도 공공하수도설치인가·목포시 계약심의와 일상감사·조달청 원가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의회, 현대삼호重 구조조정 최소화 촉구

목포시의회가 열악한 목포권 지역경제를 감안해 현대삼호중공업의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시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조선업계의 수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정부에서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조만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뒤 최대 3000명의 인원 구조조정과 100여개의 부서 감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의회는 또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 조선업체별로 주력선종을 정해 특화해야 한다"면서 "조선업은 사이클이 있는 만큼 미래 전망을 살펴 성장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은 "현대삼호중공업의 구조조정은 사무직 및 생산직까지 포괄적으로 이뤄져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최소화해 가정 파탄과 목포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 정부 공모사업 DB 구축 효과 만점

작년 3067억 국비 확보 성과

목포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타 자치단체의 롤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목포시는 1일 "중앙부처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모니터링 해 데이터베이스화 한 뒤 이를 관련 실과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공모 신청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준비로 추진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특히 동기부여를 위해 국도비 지원액·건수·사업추진 노력도 등 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 인센티브와 담당 직원 포상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분기별로 부서별 대응 모니터링 점검 보고회를 열어 부서 간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목포시는 지난해 총 49건에 3067억원(2016년도 예산 반영)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목포시는 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액 국비지원 사업은 물론 지방비 부담이 적은 사업이면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만을 전략적으로 발굴하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올해 국민안전처 소관 1개, 문화체육관광부 3개, 환경부 4개, 여성가족부 1개, 국토교통부 10개, 해양수산부 6개, 산림청 2개 등 총 27개 사업을 발굴했다.

이지홍 목포시 기획예산과장은 "이달에는 각 부처 예산편성단계, 6~9월 정부예산 심의 편성단계, 9~12월 국회 심의·의결 단계 등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해수청, 8개 시·군 해수욕장 시설 사전 점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여름 물놀이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해수욕장 시설 사전 점검에 들어간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관할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해수욕장 시설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목포해수청 관할 시(목포), 군(무안, 신안, 영광, 완도, 진도, 함평, 해남) 해수욕장이다. 점검항목은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환경시설, 해양레저시설 등의 적합여부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해수욕장 시설 점검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